

## 목판본 「탐라지도」의 내용과 지도학적 특성\*

오상학\*\*

### The Contents and Cart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Wood-block Printed 「*Tamna jido*」\*

Sanghak Oh\*\*

**요약 :** 목판본 「탐라지도」는 여타의 제주도 지도와는 달리 격자 형태의 방격과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방사상의 방위선이 그려져 있어서 일찍부터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탐라지도」는 지도에 기재된 내용으로 볼 때, 1706년에서 1716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인 해안선의 윤곽과 표현 기법 등은 1709년의 「탐라지도병서」와 유사하여 같은 계열의 지도로 평가된다. 지도는 텍스트인 주기문을 같이 수록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위치관계, 도서, 명소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탐라지도」는 방격법과 방위선법을 사용하고 있다. 방격법은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거리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고, 방위선법은 주변국과의 위치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방위선법은 서양의 포르톨라노 지도와 유사하나 실제 항해용으로 사용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탐라지도, 제주도, 방격법, 방위선법, 포르톨라노 지도

**Abstract :** Unlike other Jeju Island maps, the wood-block printed 「*Tamna jido*」 has direction line drawn centering on Hallasan Mountain and rectangular grid, and thus has drawn the attention of the academia since early on. From what is specified on the map, 「*Tamna jido*」 is presumed to have been produced between 1706 and 1716. The overall coastal boundaries and expression techniques, etc. are similar to 1709 「*Tamna jido byongseo*」, and is regarded as a map of the same kind. The map is accompanied by texts, comprised of topographical relations, islands, and famous places of Jeju Island. 「*Tamna jido*」 employs grid method and direction line method. The grid method comes from China, and aims at clarifying the distance relations, and the direction line method intends to express the topographical relations to neighboring countries accurately. The direction line method is a rare case that is hard to find in ancient maps of China or Korea. The direction line method is similar to portolan charts of the West, but it appears that it had not been used for actual voyage navigation.

Key Words : *Tamna jido*, Jeju Island, Grid method, Direction line method, Portolan charts

#### I. 서론

제주도는 한국의 가장 큰 섬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일찍부터 인간이 거주해 왔다. 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주변 지역과의 교역도 비교적 활발했던 지역으로 특히 고려시대 이후에는 국내 최대의 목마장으로 성장하면서 국가적 관심이 두드러졌던 곳이다. 제주도가 지니는 이러한 경제

적,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이 지역의 형세를 파악하기 위한 지도제작이 일찍부터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목종 때에는 제주도의 서산(瑞山)에서 화산이 폭발하자 조정에서 태학박사(太學博士) 전공지(田拱之)를 파견하여 산의 형상을 그려 바치게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sup>1)</sup> 당시의 그림은 폭발로 형성된 산과 그 주변 지역을 그린 회화식 지도로 추정된다.

또한 조선전기 지리지와 지도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던 양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ohsanghak@jejunu.ac.kr)

성지가 1482년(성종 13)에 「제주삼읍도(濟州三邑圖)」를 그려 올렸다는 기록이<sup>2)</sup> 있는 것으로 볼 때 다른 고을이나 도서 지방에 비해 지도가 활발히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존하는 제주도 지도는 대부분 조선후기에 제작된 것이다. 다른 지역의 지도들도 비슷한 실정인데 조선전기에 제작된 대부분의 지도들이 몇 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현존하는 단일 군현의 지도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종류가 남아 있다(오상학, 2004).

현존하는 제주도 지도는 김정호의 「청구도」나 「대동여지도」처럼 대축척 조선지도에 수록되기도 하지만 낱장으로 된 단독의 지도로 제작된 것도 다수 전한다.<sup>3)</sup> 대축척 조선지도에 수록되는 제주도 지도는 제주가 아닌 서울에서 제작되는 경우가 많으나 낱장의 제주도 단독지도는 제주도 현지에서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된다.

현존하는 낱장의 제주도 지도 가운데 필사본 지도는 1702년에 제작된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을 비롯하여 18세기에 제작된 「제주삼읍도총지도」, 「영주산대총도」, 「제주목도성지도」, 19세기에 제작된 「탐라지도병서」, 「제주삼읍전도」 등이 대표적이다. 제주도 지도는 목판 인쇄본으로도 제작되었는데,<sup>4)</sup> 17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형상 목사 종가 소장인 제주지도, 1709년의 「탐라지도병서」, 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탐라지도」, 19세기의 「제주도(濟州圖)」 등이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이규성 목사가 1709년 간행한 것으로 알려진 「탐라지도병서」는 제주의 대표적인 지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후에 제작되는 제주도 지도는 「탐라지도병서」를 참고하여 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주도 지도의 주류를 형성한다(양보경, 2001). 이 계보에 속하는 지도들은 제주도의 모습이 비교적 실제에 가깝게 그려져 있고 읍치(邑治), 방호소(防護所), 촌락, 중산간의 목장 지대, 임수(林藪), 포구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또한 남해안에 산재한 여러 섬들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유구국 등의 외국지명도 해당 방위에 기입되어 있다. 지도 전역에 동일한 축척이 적용되어 면적 관계도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목판본 「탐라지도」는 전체적인 해안선 윤곽으로 볼 때, 「탐라지도병서」 계열의 지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도에서 볼 수 없는 방격과 방위선이 그려져 지도학적으로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이 지도는 1979년 이찬 교수에 의해 발굴되어 소개되었다. 그는 모 고서점에서 지도를 발견한 것으로 소개하고 지도에 좌표와 방위선각이 있어서 편이상 「탐라좌표도」라고 명명했다. 아울러 「탐라지도병서」의 서문 기록과 「탐라

지도」의 주기문의 유사성, 두 지도의 해안선 윤곽과 표현 기법의 유사성 등을 들어 서로 같은 계열의 지도로 보았다. 그리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24방위의 방위선각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 「탐라지도」는 일종의 항해도로 평가했다(이찬, 1979).

이찬 교수의 논고로 「탐라지도」가 학계에 처음으로 알려졌으나 이후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1991년에 간행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일본 도쿄의 한국문화원에 소장된 것으로 소개되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그러나 지도의 사진이 없어서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최근 「탐라지도」가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에 소장된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2013년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개최한 한라산 특별전에 출품되어 제주에도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국립제주박물관, 2013:17). 지도의 사진을 보면 이찬 교수가 1979년 논문에 제시했던 것과 동일하다. 일본 도쿄 한국문화원에 소장된 「탐라지도」가 바로 이것이라면 현재까지 이 지도가 세계 유일본이 되는 셈이다.

「탐라지도」가 최근에야 다시 공개되는 바람에 지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탐라지도」의 내용을 상세히 고찰하고 지도에 담겨있는 지도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도에 수록된 지명과 다양한 주기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평가하고 다른 제주지도에서는 보기 힘든 방격과 방위선을 통해 지도제작의 과학적 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 II. 「탐라지도」의 내용

### 1. 지도의 제작시기 및 표현 내용

「탐라지도」의 크기는 세로 73cm, 가로 65cm로 세로 188cm, 가로 134cm의 「탐라지도병서」에 비하면 훨씬 작은 편이다. 목판 인쇄본 지도로 지도 내부에는 여러 주기문이 수록되어 지도와 텍스트가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 지도 상단에는 「탐라지도(耽羅地圖)」라는 지도의 제목이 표기되어 있다. 지도의 제작시기와 제작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지도의 왼쪽 상단에 고을 사람 전만성(田萬成)이 강희기미년(康熙己未年)인 1675년에 대마도에 표착했던 사실이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최소한 1675년 이후에 제작된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지도의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서는 지도 하단의 「진(鎭) 2, 방호소(防護所) 7」이라는 기록이다. 진은 총 4



그림 1. 목판본 「탐라지도」(18세기 전반, 경희대 혜정박물관 소장)

품의 만호(萬戶)가 주재하는 군사기지도이고 방호소는 종9품의 조방장(助防將)이 주재하는 군사기지도이다. 제주도에 15세기 이후 17세기 후반 무렵까지 9개의 방호소가 설치되었다. 이후 1705년(숙종 31) 수산방호소(水山防護所)를 만호진으로 승격했다가 1718년(숙종 44)에 다시 방호소로 강등했다.<sup>5)</sup> 아울러 1706년(숙종 32)에 송정규(宋廷奎) 목사가 차귀방호소(遮歸防護所)를 만호진으로 승격시켰는데, 1716년 황귀하(黃龜河) 어사가 다시 방호소로 강등했다.<sup>6)</sup> 이로부터 9개의 방호소가 유지되다가 1764년(영조 40) 이수봉 어사에 의해 명월방호소(明月防護所)가 만호진으로 유일하게 승격되었다.<sup>7)</sup>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제주도에 만호진이 2개가 있었던 시기는 1706년에서 1716년 사이이다. 실제 지도에도 차귀와 수산은 만호진으로 표기되고 나머지는 방호소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지도의 제작시기는 1706년에서 1716년 사이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탐라지도」의 제작자는 누구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지도제작자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에 제작자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지도에 수록된 정보가 최신의 것으로 되어 있고 군사적, 행정적 성격이 강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민간보다는 관에서 제작한 지도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제주도의 단독지도들이 대부분 제주목사의 주도하에 제작된 점을 고려할 때 「탐라지도」 역시도 제주목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탐라지도」는 다른 제주도의 단독 지도처럼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여 그려져 있다. 조선시대 제작된 제주도의 단독지도는 거의 대부분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고 있다. 김정호의 「청구도」나 「대동여지도」와 같은 대축척의 조선지도에서는 북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여 그리기 때문에 제주도 지도도 제주목이 있는 북쪽 방향이 위쪽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단독의 제주도 지도에서는 균왕이 남면하여 정사를 하는 방향으로 배치되어 남쪽이 지도의 상단이 된다. 이러한 방위 배치는 제주도 지도의 하나의 전통으로 고착되었다.

전체적인 해안선의 윤곽은 실제의 형태와 유사하게 그려져 있다. 1702년에 제작된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보다는 1709년의 「탐라지도병서」의 해안선 윤곽과 비슷하다. 제주도는 지도의 상단부에 배치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남해안의 여러 섬들을 그려 넣었다. 남해안 섬들의 경우, 다른 제주도 지도에서는 대체로 상대적 위치 관계만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탐라지도」에서는 방위와 거리까지 고려하여 해당 위치에 그려 넣었다. 지도의 외곽에는 중국, 일본, 유구 등의

주변국과 남해안의 육지 지명들을 기입하여 상대적 위치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바다에는 「탐라지도병서」처럼 파도무늬를 그려 넣었다. 파도무늬는 조선전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지도에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 고지도에 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아라비아 고지도에서도 볼 수 있는 요소로 문화교류의 한 지표이기도 하다.

「탐라지도」는 「탐라지도병서」에 비해 소축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수록된 내용은 비교적 소략하다. 자연적 요소로는 한라산, 오름 등의 산지, 하천, 그리고 수목이 울창한 곳자왈 지대가 그려져 있다. 특히 백록담이 있는 한라산의 모습이 강조되어 그려져 있고, 한라산 정상에서부터 해안으로 뻗어 가는 숲 지대인 지금의 선술꽃자왈, 화순꽃자왈, 무릉꽃자왈 등이 부각되어 있다. 현재의 조천읍 중산간 지대에 해당하는 곳에는 돌무더기 지대인 난석(亂石)이 점의 형태로 독특하게 그려져 있고, 지금의 김녕, 세화에 이르는 동북 해안가의 모래사장은 「장사(長沙)」라 표기하고 실선으로 길게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 것은 다른 제주 고지도에서는 보기 힘들다.

인문적 요소로는 취락, 군사시설, 목마장 등이 그려져 있다. 제주목과 정의현, 대정현 등의 읍치는 읍성의 모습과 함께 그려져 있다. 지도의 모든 지역을 동일한 축척으로 그렸기 때문에 읍치만을 확대하여 그리지는 않았다. 촌락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적게 수록되었다. 중산간 지역의 교래촌, 송당촌을 비롯하여 해안지역에 위치한 신촌, 우둔촌 등을 제외하면 마을 지명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해안의 포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수록되어 있다.

해안 방어에 필요한 군사시설은 비교적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섬의 동쪽으로 가면서 화북소, 조천소, 별방소, 수산진, 서귀소, 모슬소, 차귀진, 명월소, 애월소 등의 군사기지가 표시되어 있다. 이 시기 수산진과 차귀진은 진성의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종4품의 만호진으로 삼았다. 제주목 읍치에서 가장 멀어 외적의 침입에 취약한 곳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25개의 봉수가 그려져 있다. 그러나 해안에 설치된 연대는 그려져 있지 않는데, 이는 지도가 소축척이라 연대까지 수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산간에 설치된 목마장도 각 소장별 경계선과 함께 소상하게 그려져 있다. 1소장에서 10소장까지 그려져 있고, 해안에 있는 모동장, 천미장, 좌가장 등의 목장도 그려져 있다. 그러나 당시 한라산 동쪽 산록에 설치된 산마장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 2. 수록된 주기문의 내용<sup>8)</sup>

### 1) 제주도의 개관과 범례

제주도의 개관과 범례에 해당하는 주기에는 제주도의 크기, 행정구역, 인구, 경지, 목장, 과원, 군사시설 등에 관한 내용과 지형·지세, 해안지형, 식물생태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탐라지도병서」의 것과 대략적으로 같아서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범례에 해당하는 내용은 「탐라지도」의 지도제작법과 관련된 것으로 10리 방안과 나침반을 사용하여 그렸음을 밝히고 있다. 이 내용은 여타의 제주도 지도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동서 140여리 남북 70여리 州가 1, 縣이 2, 鎭이 2, 방호소가 7개 있다. 호수는 8900호, 밭은 9,600여결, 목장 13소, 과원 36소, 봉수 25개, 연대 38개가 있다. 옛 장성이 동쪽은 정의현 우미포에서 서쪽 대정현 우포 해안에 이르는데 둘러쌓은 것이 300여리가 된다.

東西一百四十餘里 南北七十餘里 州一縣二鎭二防護所七人戶八千九百零 田九千六百餘結 牧場十三所 果園三十六烽燧二十五 烟臺三十八 古長城東自旌義又尾浦 西至大靜友浦沿海 環築三百餘里

섬의 지세는 엷어진 사발과 같다. 측면이 경사지고 바위가 험하고 평야가 적다. 언덕과 봉우리가 모두 홀로 분포하고 크게 기울어져 있다. 언덕들이 어지러이 섞인 것이 어지러운 무덤과 같다. 대부분의 쌓은 돌은 모두 완고하고 사나우며 검고 추하다. 산정은 반드시 움푹 패어 가마처럼 함몰되어 진흙에 물이 고여 있는데 봉우리마다 모두 그러하다. 땅 밑으로는 석굴들이 섞여 있어서 향아리 같은 구멍이나 구덩이가 많다. 하천은 복류하여 바다에 이르러 나온다. 다만 하천 양안의 산비탈 벽에 어지러운 돌들이 쌓여 있는데 사람과 말이 통과하는 곳으로 '양(梁)' 이라 부른다. 10리 거리에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섬을 둘러가며 석벽과 가파른 암석이 펼쳐져 있어 해선을 정박시킬 수가 없어서 오직 포구에 석보(石堡)를 설치하여 적을 막았다. 또한 울창하고 광활한 숲이 많아 비자나무, 옷나무, 적울(구실잣밤나무), 가시나무, 산유자, 이년목, 황산목, 해동(돈나무), 후박나무, 고련(苦楝, 멸구슬나무), 무환자, 안식향, 팔각향 등의 나무가 모두 여기에서 나온다. 島之地勢 如覆孟傾仄 崑險平野絕少 丘巒皆孤擲隆頽 阜陵雜亂如網目如亂塚 多積石皆 頑巖黑惡 山頂必凹 如鑊陷成泥 潦峯峯皆然 地底渾是石窟 故多洞穴阮塹 川溪伏流到海

方出 但見兩岸 峭壁中堆亂石 人馬通過處謂之梁 往往十里無一 又環島石壁巉巖鋪列 海船不得入泊 惟於浦口設石堡以禦賊 又多深林廣藪如樞樞赤栗 加時山柚二年木黃山木海桐厚朴苦楝無患子安息香八角香等木皆出於此

지도에 있는 사각형 격자는 가로 세로 10리에 해당한다. 산수나 정보와 같은 곳은 종횡으로 나침반을 놓아 그 만나는 곳을 정했고, 여러 섬의 원근은 또한 눈금으로써 헤아려 측정할 수 있으니 구고(직각삼각형)의 산법이 저절로 이루어져서 그 거리를 알 수 있다.

圖中每一井爲方十里 凡山水城堡等處 皆縱橫泛鐵而定其交會處 諸島遠近 則又以井間推而量之 自成句股算法 而得其里數

### 2) 주변 지역

주변 지역과 관련된 주기문은 제주도 본섬 이외의 지역과 관련된 주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부 지역은 방위에 따라 기술하기도 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도 대부분 「탐라지도병서」의 것과 유사하여 그것을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675년 고을 사람 전만성이 하루 만에 대마도에 표착한 사실을 기재하였다. 육지로 왕래할 때 풍향이 안 맞는 경우 표류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중국이나 지금의 오키나와에도 표도하는 사례가 있었다.<sup>9)</sup>

마라도와 가파도의 거리와 면적 관계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실제 지도에도 가파도와 마라도의 위치가 제대로 표현되어 있다. 상추자와 하추자로 이루어진 추자도는 신도(身島)와 별도(別島)로 구분하고 있다. 백해와 흑해에 대한 내용도 표도했던 사람의 증언을 들어 기술하였다. 백해는 최부가 중국 태주로 표류하여 갈 때 보았던 바다로 지금의 이어도 해역으로 추정된다(오상학, 2011:81-82).

건방(乾方)과 술방(戌方) 사이를 보면 하늘 끝으로 섬이 있는데 분별할 수 없다.

望見乾戌間 天際亦有島嶼 而不可卜識

신방(申方)의 하늘 끝에는 산이 있다. 절강이라 하는데 송강부의 금산이다.

申方天際 有山如□□(판독불가)浙江云 松江府之金山也

대마도는 동여서도의 정동이 된다. 강희 기미년에 고을 사람 전만성이 동여서도에서 서풍을 만나 하루 밤낮에 대마도에 이